

加賀毛針

歴史

加賀毛針の起源は明らかではないが、加賀藩では武士の特権として鮎釣りが認められていた。このため、武士が個々に工夫して鮎毛針を考案し、また下級武士の内職としても作られていた。

明治7、8年(1874、1875)ごろ、釣りが一般に開放され、専業の釣り針屋が営業を始めるようになった。明治23年(1890)には、内国勧業



博覧会に出品し、その美しさから高い評価を受け、東京を中心に全国に販路を拡大していった。戦時中、ぜいたく品として需要が落ち込んだが、近年の釣り人口の増加で加賀毛針は根強い人気を誇っている。

特色

疑似餌[ぎじえ]に見せる部分の原材料は、主に野鳥の羽毛を用いる。そして、ハリスは本テグスを用い、ハリスと針の接合部には光明丹[こうみょうたん]と漆、金箔を使って接着し、毛巻きには絹糸を使用する。このことが、水中でも長時間の使用に耐える実用性に優れた針を作り出す秘訣である。

加賀毛針は大切に扱えば、100匹以上の鮎が上がると言われており、耐久性と同時に、針巻き師と釣り人が針と釣果について絶えず情報交換をし、改良を重ねてきた結果と言える。



가가낙깃바늘

역사와 특색

가가케바리라고 하는 낙깃바늘의 기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가번에서는 무사의 특권으로 은어낙깃바늘이 허용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사가 개별적으로 연구해 은어낙깃바늘을 고안해 냈으며, 1874년, 1875년 경에는 낙시가 일반에게 개방되면서 낙깃바늘 전문상점이 영업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1890년에는 국내 권업박람회에 출품돼, 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를 받았으며, 근년 낙시인구가 증가되면서 가가케바리는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짜미끼로 보이게 하는 부분의 원재료는 주로 야조의 깃털을 사용합니다. 목줄은 천잠사를 쓰고, 목줄과 바늘의 접합부에는 고모탄과 옷칠, 금박을 사용해 접착시키며, 깃털과 낙깃바늘을 감는 데는 비단실을 사용합니다. 이런 재료들이 물 속에서도 장시간 사용가능한 실용성이 뛰어난 낙깃바늘을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毛針、アクセサリー(게바리, 액세서리)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加賀毛針の会(가가케바리 모임) 〒920-0854 金沢市安江町11-35(가나자와시 야스에초 11-35) TEL (076) 231-6371